

#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목요일 — 오전 1부 집회)

## 메시지 1

### 하나님의 경륜을 회복함

성경: 행 26:16-19, 딤편 1:3-6, 6:3-4, 고후 11:2-3, 롬 16:17, 딤후 4:22

I.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 이상은 반드시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로 워져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과 활동을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잠 29:18상, 행 26:16-19, 요일 1:7, 요삼 3-4.

A.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다 — 딤편 1:3-6, 6:3-4, 고후 11:2-3, 딤편 1:9, 골 2:19.

B.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 곧 하나님의 경륜의 전략적이고 중심적인 지점은,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이다 — 고후 3:17, 딤후 4:22, 롬 8:16, 고전 6:17.

1.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신성한 영께 자신을 한정시키고 심지어 모든 관심을 그분께만 집중하여, 신성한 경륜의 표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딤편 1:6, 말 2:15-16, 롬 1:9, 8:4, 6, 갈 5:25, 빌 3:3, 고후 2:13.

2.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대한 ‘청사진’에서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이다 — 창 2:7, 잠 20:27.

a. 하늘들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 슄 12:1, 요 4:24.

b.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이 없다면, 온 우주는 공허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 전 1:2, 3:11, 욥 32:8, 비교 롬 9:21, 23, 고후 4:7.

3.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 우리의 혼 안에서 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사는 것이다 — 슄 4:6, 12:1, 고전 15:45하, 6:17, 요일 2:18-19.

4.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eness)의 회복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단일함과 하나(eness)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은 혼돈과 분열의 장소인 바벨론에 있는 것이다 — 요 4:24, 앵 2:22, 롬 1:9, 딤후 1:6-7.

5. 우리의 영은 한 새사람을 위해 인종을 삼켜 버리는 은혜의 ‘나라’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툼의 ‘나라’이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 곧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타락이 발생한다 — 딤후 4:22, 갈 6:18, 5:15, 골 3:10-11.

- C.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실재이다 — 앵 1:22-23, 계 21:2-3, 9-10.
  - 1. 각 지방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지적인 표현이 없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있을 수 없다 — 계 1:10-13, 2:7.
  -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앵 4:1-6, 11-16.
  - 3.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섞이는 생활 안으로 모든 성도를 이끌어야 한다 — 고전 12:24, 롬 16:1-20.
  - 4. 이 시대에 주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오늘날의 예루살렘(교회생활) 안에 있는 오늘날의 시온인 이기는 이들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한다 — 계 3:21-22, 14:1-5, 사 5:15-16, 31.
- D.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한 가르침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들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 보배로운 인격을 진정으로 감상하고 사랑하고 누리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 딤후 1:3-4, 행 2:42, 고후 11:2-3.
- E. 오늘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 행 1:14, 고전 1:9-10, 롬 32:39.

**II. 하나님의 경륜은 사도들을 통해 밝혀졌지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 A. ‘회복’과 ‘경륜’이라는 단어는 한 대상을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경륜의 문제이고,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회복의 문제이다 — 딤후 1:4, 앵 1:10, 3:9.
- B. ‘회복’이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곧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 마 19:8.
- C. 하나님의 대다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하신다는 강력하고도 견고한 원칙이 있다. 항상 주님의 회복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곧 남아 있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한다 — 왕하 22:8, 스 1:3-11, 느 2:11, 17, 계 3:21, 18:4.
- D. 우리의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실행에 의해 지배받아서 안 되고,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전진에 따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에 의해 지배받아야 한다.
  - 1.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중심과 실재와 생명과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 골 1:17하, 18하, 계 2:4, 7, 17, 3:20, 시 80:1, 15, 17-19.
  - 2.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 요 17:11, 21-23, 앵 4:3-4상, 계 1:11.
  - 3.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 앵 4:15-16, 고전 14:4하, 26, 31.
- E.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 이 이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 행 26:18-19, 잠 29:18상.

**III.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분열과 죽음을 멀리해야 한다.**

- A.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멀리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삼켜져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생명의 본성 안에 있고, 생명의 내용을 가지며, 생명의 흐름 안에 있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 고후 5:4, 요 7:38, 요일 5:16상.
- B. 우리는 반드시 온갖 종류의 분열을 거절하고(고전 1:10), 온갖 종류의 가르침의 바람과 영적인 죽음의 확산에 맞서며(엡 4:14, 딤후 2:16-17),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롬 16:17, 딤후 3:10).
- C.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첫째로 처리해야 할 것이 듣는 문제임을 계시한다. 우리의 움직임(발)과 일(손)은 항상 우리가 들은 것의 지시를 받는다 — 레 8:23-24, 14:14-17.
1.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에 우리의 귀를 내준다면, 우리의 행위와 일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어떤 교회든지 부정적인 것들을 듣기를 중단한다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살아 있을 것이다. 가장 약하고 죽어 있는 교회는 비평과 한담과 시비가 가득한 교회이다.
  3. 우리는 종종 깨끗하지 않은 말들, 곧 건강하지 않고 전염성이 있는 말들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귀를 씻어야 한다. 피로 씻은 후에,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을 누릴 것이다.
  4. 긍정적인 것을 듣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듣는 데서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는 조금도 우리의 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 계 2:7, 요 10:3-5, 16, 27, 야 2:8, 14.
- D. 우리의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제물인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누룩(인도 직분에 대한 야심)과 꿀(천연적인 애정)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 레 2:11.
1. 야심과 천연적인 애정은 함께한다. 야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것이고, 자신의 야심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 요삼 9.
  2.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을 실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따르고 있다 — 행 26:19, 딤후 1:15, 2:1-15.
- E. 교회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먹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상징한다 — 비교 행 10:9하-14, 27-29.
1. 먹는 것이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접촉하여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결국 그것을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접촉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재조성하여 현재의 우리의 존재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2.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 고전 15:33.
  3.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 잠 13:20.
  4.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데로 더욱 더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으며, ...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 딤후 2:16-18, 22.

##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욕심욕 권으로 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성경을 철저히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분배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류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분배(分配, dispensation)라는 용어가 기독교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경륜'과 거의 동일하게 정의된다. 이 단어는 '행정적인 안배, 통치적인 관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하고 분배하는 청지기 직분과 관련된다. 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만을 우리에게 분배하고자 하신다. 우리는 이 말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 지도록 여러 번 이 문장을 반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다. 그분은 마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와 같으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한 가지 사업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엄청난 부(富)가 바로 그분의 자본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러나 자본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 자본으로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자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업가시요 자본이시며 생산품이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많은 사람에게 값 없이 분배하시어 그분 자신을 대량 생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인성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러한 신성한 안배와 경영과 분배와 경륜을 필요로 하신다.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을 보기로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자신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께서 '무엇'을 분배하시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실질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가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제품의 실질이나 그 기본적인 구성 성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실질은 영이다(요 4:24).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우주적인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영이다. 하나님은 제조자이시고, 그분 자신을 생산품으로서 재생산하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생산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그분 자신의 실질인 영이어야 한다.

##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배하시는지를 알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통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분배하시는 것은 영이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바로 삼일성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신격의 경륜이시다. 과거 수세기 동안 기독교에는 삼일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다. 그러나 삼일성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필요한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위격 안에서 표현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신격의 세 위격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 이유는 오직 삼일성을 통해서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삼일성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를 보여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들의 은혜가 있고, 아



버지의 사랑이 있으며, 성령의 교통이 있다. 이들은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신가?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서로 다른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세 단계에 있는 한 요소이다. 사랑은 근원이며,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고, 교통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랑의 전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도 세 위격 안에서 표현되신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며,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 안에 가져다주는 전달이시다. 그러므로 삼일성의 세 위격은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을 구성하는 연속적인 세 단계이다. 이러한 세 단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 안으로 분배될 길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버지'에게서' 시작하여 아들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발전한다.

##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가까이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데(딤후 6:16),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아버지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접근할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길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경륜의 신성한 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 삼일성의 둘째 위격인 그분의 아들 안에 자신을 넣으셨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아들 안에 거하며(골 1:19, 2:9), 아들을 통해 표현된다(요 1:18). 만물의 다함이 없는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體現)되셨다(요 14:10).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고(요 1:1),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골 1:15).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시요(요 10:30),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라고 불리신다(사 9:6).

전에는 사람이 아버지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분 홀로 하나님이셨고, 오직 그분의 본성만 신성했다.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이어 줄 다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체현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 안에서 육체가 되셨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자신의 신성을 인성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셨다. 가까이할 수 없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의 육체 되심을 통해 가까이할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로써 사람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흰 손수건을 푸른색 물감 속에 담그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은 흰 손수건이라 할 수 있다. 푸른 물감 속에 잠긴 손수건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성 안에서 육체가 되신 것을 나타낸다. 흰 손수건은 이제 푸른 손수건이 되었다. 푸른색이 흰 손수건에 더해졌듯이, 사람의 본성이 신성한 본성에 더해진 것이고, 이전에는 떨어져 있던 본성들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자신을 분배하시는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육체가 되시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 안에 재생산하셨다.

## 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는 둘째 단계는 삼일성의 둘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의 둘째 단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어떤 성분들이 함께 결합되어 그리스도를 조성하는가?

이 놀라운 인격은 모두 일곱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여섯 가지 요소는 그분의 역사(歷史)를 통해 더해진 것들이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체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 요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요, 본성이다.

둘째 요소인 사람의 본성은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 더해졌다. 그분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신성한 본

성과 사람의 본성의 연합이었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을 인성과 연합되게 하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동시에 사람도 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더해진 셋째 요소는 바로 인간 생활이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인간 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온갖 것들을 체험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피곤하고 배고프며 목말라하시고 우셨다는 것도 보여 주고 있다(요 4:6-8, 31, 11:35). 그분께서 겪으신 고난들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 고난에는 땅에 속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시험과 박해들이 포함된다.

넷째 요소는 그분의 죽음의 체험이다. 그분은 죽음 안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 ‘속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다’. 이것은 매우 효능 있는 죽음을 산출하였다. 아담의 죽음은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놀랍고도 효능 있는 것이다. 아담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노예’가 되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 안으로 여러 가지 악한 요소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효능 있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아담의 본성에 속한 모든 요소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 고난의 인생과 죽음의 효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더 있다. 다섯째 요소는 바로 그분의 부활이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람의 신분은 다 벗어 버리시고, 다시 단지 하나님만으로 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한 사람이시다(딤후 2:5). 더 나아가, 부활 생명의 요소가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더해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섯째 요소는 그분의 승천이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정사(政事)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권위들을 초월하셨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발밑에 있다(엡 1:20-22상). 그러므로 승천의 초월하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곱째 요소는 보좌에 앉으심이다. 신성을 소유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머리로 높이 지시고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엡 1:22하).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 모든 왕의 왕의 왕(계 17:14, 19:16)으로서 하늘들 안에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곱 가지 놀라운 요소, 곧 신성한 본성, 사람의 본성, 고난의 인생, 죽음의 효능, 부활 능력, 승천의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이 놀라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

## 그 영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 경륜의 처음 두 단계에 따라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 안에 넣으셨고, 그런 다음 아들은 자신 안에 일곱 가지 요소들을 연합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단계, 즉 마지막 셋째 단계가 필요하다. 첫 단계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신 것이요, 둘째 단계는 아들께서 인성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일곱 가지 놀라운 요소를 자신과 연합시키신 것이다. 이제 셋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지금 그 영 안에 계시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그 영 안으로 이끌린 것이다(요 16:14-15).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은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과 똑같지 않으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단 한 가지 요소, 즉 하나님의 신성만 갖고 계셨다. 신성한 영이신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의 효능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의 요소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경륜 아래서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요소가 모두 그 영 안에 놓였고,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오셨다. 바꾸어 말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실질적으로 연합한 것이며,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과 연합되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요 14:26, 15:26, 16:13).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 헬라어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실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실재의 영,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재 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듯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놀라운 인격 안에서 실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된 분이 아니시고, 그 영도 그리스도와 분리된 분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는 표현된 하나님이시요, 그 영은 실재가 된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분리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이라고 언급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도 성령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심을 지적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생명 주시는 영께서 성령이심을 인정해야 한다(요 6:63, 고후 3:6).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 영이시다(요 4:24).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 위격은 모두 그 영이시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아들 하나님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모두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다음 구절들(특히 굵은 글씨)을 주의해 보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엡 4:6)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고후 13:5).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롬 8:11).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는가? 셋인가, 하나인가? 우리는 분리된 세 위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한 위격만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다만 셋-하나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해야 한다. 신격의 세 위격은 세 영들이 아니라 한 영이시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일곱 가지 놀라운 요소를 지니신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신다.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신격이 우리 속에 분배되는 것이다. 세 위격이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갖는다. 나중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적이고 내적인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이며, 신격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방법이다. 신성한 경륜의 목표는 한 영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선하고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을 놓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신성한 경륜의 이 표적에 집중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계신다.

오, 주님만이 내 생명 나에게 모든 것 되니  
참 친절하고 편리해 영원히 쓰고도 남네

(후렴) 오, 주는 생명 주는 영 참 친근하시니  
주 이는 사람 그를 좋아해 항상 새롭네

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공급되시니  
참 완전하고 풍족해 내 영을 사용할 때에

주 내게 기름 부으며 인도해 날 도우시니  
주 능력으로 내 약함 변하여 강함이 되네

영 안에 율법 생명률 내 생활 자유케 하며  
주 주신 풍성 실재로 내 온몸 충만케 하네

주 나와 한 영 됴므로 영원히 거리가 없네  
이 같은 거룩한 연결 무엇과 비할 수 없네  
(찬송가 400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3권, 하나님의 경륜, 219-228쪽)*